

첫돌 맞은 '삶디'서 꿈 키운 광주 청소년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3~4일 개관 1주년 포럼·강연

동아리 활동 발표·토크쇼도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삶의 역량을 키우는 진로체험공간인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이하 '삶디')가 개관 1주년 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2일 "삶디는 지난 1년간 광주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활동 허브 구축을 모색한 성과를 모아 '1년, 씨앗의 발간'을 주제로 3일부터 이틀간 관련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3일에는 사례공유회와 교육포럼이 열린다. 사례공유회는 자유학기제, 동아리, 방과후를 접점으로 '삶디'와의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한 송의중, 살레시오고, 조대부고의 활동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N개의 방과후 프로젝트', 'ArTeen(아틴) 공연예술학교' 등 두 사례에 대한 교육포럼이 열린다.

또 '모멸감'의 저자이자 사회학자인 성공회대 김찬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위치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개관 1주년 특별강연을 한다. 어떤 일자리가 살아남고 '미래 유망 직업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바라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다.

오는 4일에는 낮 12시 '청소년 런치토크:미팅도 식후교'으로 문을 연다. '삶디'

청소년운영위원회 '삶디씨'가 주축이 돼 마련한 행사다. 광주지역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 위원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요리를 통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삶디'에서 진행한 '세상에서

가장 느린 식당'은 손수 텃밭을 일구 수확한 작물로 요리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삶에 대해 공부하는 '농부요리사' 과정을 진행했다.

또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는 과정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길 찾기와 자기 삶을 디자인하는 청소년 요리대안학교 '영세프스쿨'이 사례발표를 한다.

이 밖에 삶디 1층 '어서옵쇼'에서 개관 1주년을 축하하는 '네트워크 파티'도 열린다. 1년 동안 삶디를 드나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라디오 토크쇼 형식으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인디밴드 '더스키톤', 청소년밴드 '쿠잉'과 '초록달', 우쿨렐레 동아리 '우케케계'의 공연도 곁들여질 예정이다.

광주시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최근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1년 남짓한 운영에도 개성 있는 청소년 진로특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개관 기념행사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지역과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시민교육활동가 84명 '광주공동체' 앞장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곳곳에 찾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광주정신을 확산하고 있는 '찾아가는 시민교육활동가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학습과 고용이 연계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다.

2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민주도의 시민교육활동가 양성을 시작해 올해 3년차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시민교육활동가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광주정신'을 전파해 생활 속 공동체 문화로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민교육활동가는 2015년 양성된 41명(1기)과 2016년 43명(2기)로 구성된 총 84명의 시민리더가 추측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 광주정신과 광주공동체 만들기, 마을공동체 형성 방법, 광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다. 교육 수료 이후에도 교수법, 시민 활동, 시민교육 등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대상별로 맞춤형 커리큘럼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시민교육 입문단계의 '광주 알리기'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에게는 시민교육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광주역의 역사, 예술, 유적, 인물 등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주 알기 답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광주정신탐방, 무등산탐방 등 6개 코스로 20회 진행하여 총 621명이 참여했으며, 오는 12월에 성과공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시민교육활동가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만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광주정신을 공론화하고 있다"며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꾸준히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해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시민교육활동가 사업이야말로 학습과 고용이 연계된 광주다운 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시민교육활동가들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만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 광주정신을 공론화하고 있다"며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꾸준히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해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시민교육활동가 사업이야말로 학습과 고용이 연계된 광주다운 일자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살뜰한 마을회의 맡겨주세요

광산구 청소년활동가 위촉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윤난실)는 2일 광산구작은도서관연합회, 광주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광산구 최초로 마을살이 청소년활동가를 위촉하고, 명함을 전달했다. 청소년활동가는 기존 마을회의나 워크숍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풀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가 양성교육은 광산구 정광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2주간 광산구의 역사와 변화, 마을활동가 입문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제공〉



장애인이 직접 뽑은 복지 공모전 1위는?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safe zone-센서' 최우수상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를 직접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은 2일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달 31일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54편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장애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심사결과 9편의 아이디어를 당선후보작으로 선정했다.

최종 평가는 50명의 장애인과 가족이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1차 전문가의 손을 통과한 당선후보작의 제안자가 직접 PPT를 만들어 발표하고 심사위원인 장애인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문자 투표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호남신학대학교

서준영씨)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safe zone-센서'가 차지했다.

'safe zone-센서'는 장애인 차량과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에 센서를 부착해 차량이 없는 차가 불법 주차할 경우 음력이 나오도록 만들어 불법주차를 방지해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차지했다.

광주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장애인이 살기 편한 세상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현장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최대한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주민자치박람회 16년 연속 수상

광주시 북구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경진대회에서 16회 연속 수상했다.

북구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지역 활성화 분야,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국 380여개 참가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4개 사례가 경쟁했으며 북구는 ▲지역활성화 ▲주민자치 등 2개 분야 4개 사례가 상을 받았다.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는 매곡동 '같이 보고 함께 가는 시골벽책! 대화골 주민공

동체', 삼각동 '바람개비는 혼자 돌지 않는다! 바람개비꿈 삼각동' 사업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이 선정됐다.

또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임동 '함께 그리는 임동 이야기?생! 생! 생!'사업이 우수상을, 건국동 '건국동 마을기억저장소:기억이 공동체다!'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상 3회, 최우수상 5회, 우수상 25회, 장려상 25회, 특별상 4회를 수상하는 등 올해까지 16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운동 "3대가 건강한 우리마을 최고"

광주시 마을자랑대회 최고상

광주시 동구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열린 '2017 광주시 우리마을 자랑대회'에서 최고마을에 선정됐다.

동구는 2일 "'우리마을자랑대회'에서 청중평가단 500여명이 현장투표한 결과 학운동이 최고마을로 선정돼 상금 6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은 학운동의 특성을 살려 '3대(代)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최고마을 선

정의 영예를 안았다.

'3대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는 어르신, 성인층, 청소년 등 3대에 대해 각각 실버요양교실, 라인댄스, 실내스키체험·영양교육 등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마을환경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사업을 통해 3대가 함께 소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학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올 연말 무등산탐방센터 일대에서 '3대가 함께하는 윤림골 나눔축제'를 개최해 주민 건강체험부스와 어린이 나눔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본 자연장은 이릉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화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